

체육회장 선거인 수 결정... 공정성 논란 여전

도체육회 선관위, 선거인 수 207명으로 결정·배정 종목단체-시체육회 배정 인원 두고 적절성 지적도

상상 첫 민간인 제주도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의 선거인 수가 207명으로 확정되면서 선거전 이 달아올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인 수 결정·배정 과정에서 종목단체와 시체육회의 대의원 수 차이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따라붙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주도체육회관 소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도체육회장 선거인 수를 207명으로 결정해 이를 회원 단체별로 배정했다. 이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인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고, 회원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 수는 시체육회에 배정하는 선거인 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인 수는 정회원 종목단체 120명,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 87명으로 총 207명이다. 이를 자체히 들어 다보면 당연직 대의원인 정회원 종목단체 회장과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 회장 등 50명이 기본적으로 포함

됐고, 등록 선수와 인구 등에 가중치를 뒤 정회원 종목단체 24곳, 시체육회 1곳에 25명이 더 배정됐다. 나머지는 종목단체에 48명, 시체육회에 84명이 추가됐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검토 과정을 거쳐 선거인 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의원 수의 격차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선거인 수 배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회원 종목단체 대의원(597명, 11월 기준)이 두 행정시 체육회 대의원(87명)보다 8배 가량 많은데도 시체육회 대의원이 모두 투표권을 얻은 데 반해 종목단체 대의원은 10명 중 2명 정도만 선거인에 포함되는 데 그친 것이다. 특히 시체육회 대의원인 읍면동 체육회장 34명 중 33명이 읍면동장이어서 관권선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에 문관영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장은 "선거인 수를 250명으로 하고 정회원 종목단체에 더 많이 배정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제주도체육회 기지실에서 도체육회장 선거인 수 결정·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체육회 제공

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시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모두 대의원으로 포함된) 중복자를 제외해 보니 확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읍면동장의 경우 당연직이 아니라 지역별로 체육회를 구성하고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인에 포함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회장 선거인 수가 결정되면서 각 단체에 배정된 선거인 수가 통보되고, 오는 21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추천이 마감된다. 선관위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2일 사이에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3일간의 열람 기간을 거쳐 1월 5일까지 선거인이 확정된다.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1월 6일부터 14일까지 가능하다. 도체육회장 선거는 같은 달 15일 오후 1-6시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김지은기자 jieun@halla.com

“제주, K리그1 승격 노력 보여줘야”

제주 유나이티드 팬들, 9일 성명 통해 책임자 사퇴·선수단 체질개선 등 요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내년 K리그2 (2부)로 강등된 것과 관련해 책임자 사퇴, 선수단 체질 개선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제주 유나이티드 팬 20여명은 9일 '제주 유나이티드를 사랑하는 팬 일동'으로 성명을 내고 "올해 제주 유나이티드는 2006년 제주에서 첫 시즌을 시작한 이래 지난 14년의 시즌 중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며 "끝내 정

규리그 12위 다이렉트 강등이라는 성적으로 구단과 선수, 그리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제주 축구팬들에게 잊지 못할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구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K리그1 승격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며 >2부 리그 강등에 따른 책임자 사퇴 >K리그1 승격을 위한 공격적 선수 영입과 선수단 체질 개선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장기적 마케팅 전략 수립 >구단-팬 간담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달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계획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벤투호 “동아시아컵, 실험·결과 다 잡겠다”

11일 부산서 홍콩과 첫 경기 중국·일본과 차례대로 격돌 “새로운 선수·옵션 시험할 것”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국제대회 우승'을 노리는 파울루 벤투 감독은 다른 때보다 준비할 시간은 부족했지만, 새로운 선수들을 점검함과 동시에 결과도 얻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벤투 감독은 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개막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 대회에서 전통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최근 2회 연속 우승을 거뒀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



9일 오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에 출전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전술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팀은 11일 홍콩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동아시아컵 3회 연속 우승 도전에 나선다.

벤투 감독 개인이엔제 한국 대표팀에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우승' 타이를 가질 기회다.

연합뉴스

손흥민(토트넘)을 필두로 한 유럽 리그 소속 선수는 합류할 수 없지만, K리그 최우수선수(MVP) 김보경(울산)을 비롯해 올해 각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이 모였다.

벤투 감독은 "단기 대회이긴 하지만, 새로 발탁한 선수들을 시험하고, 오랜만에 대표팀에 온 선수들에게 기회를 펼칠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회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길 바라고 있다"며 "여러 선수 조합과 새로운 옵션을 시험해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고 우승에 대한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

한국은 홍콩, 중국(15일), 일본(18일·이상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과 차례로 격돌한다.

벤투 감독은 "이번 대회는 평소처럼 준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중요한 건 팀의 조직력, 하나의 팀으로서 뛰는 것이다. 첫 경기부터 최선을 다해 잘 짜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포기는 없다 9일 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제73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남자 단식 결승 삼성생명 조승민과 미래셋대우 정우진의 경기. 조승민이 정우진의 공을 받아 내고 있다. 경기는 정우진이 조승민을 4-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미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한국인의 밥상(재)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랑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MBC 특별생방송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1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 아침 10:30 특집 삼맛 나는 오늘 11:00 푸르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똥똥똥 유치원 9:30 원더볼즈 10:00 자식의 기쁨 12:00 EBS 정오뉴스 14:55 꼬마버스 타요 15:10 로보가 폴리 15:55 열의 개투리 16:10 최고다! 호기심 딱지 4 16:40 똥똥똥 친구들 17:30 애코와 친구들 19:00 스텝이더맨 20:00 매달도사
12:00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13: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4:00 KBS 뉴스 14:10 TV는 사랑을 싣고(재) 15:00 가오루대(재) 16:00 시사간선 17:00 KBS 뉴스5 17:30 동물의 왕국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45 육방방의 문재야(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착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재) 17:00 다큐 공감(재)	12:00 12 MBC 뉴스 12:20 MBC 특별생방송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2부 13: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롱뽀롱 모두가 놀자 16:20 나쁜 사랑(재) 17:00 5 MBC 뉴스 17:25 앙코르 세계의 섬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JIBS스포츠 2019 제주컵 국제유도대회 16:00 JIBS 특집다큐멘터리 섬, 평화의 바람 1부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태희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김태희가게 이한별입니다 12:00 CBS나눔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재능종합뉴스 18:20 시사자기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연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보물섬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KBS 뉴스 9 22:00 역사재민 그날 22:55 더 라이브 23:35 슈퍼 23:40 바다 건너 사랑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우아한 그녀 20:30 글로벌24 21:00 연예뉴스 22:00 정해인의 걸여보고서 22:40 정해인의 걸여보고서 23:20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18:25 지역MBC 공동기획 농담이 미려다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웃음주식회사 속암수다 21:50 판매중계 1부 22:30 판매중계 2부 23:10 PD수첩	18:00 영재발굴단(재) 19:00 JIBS 특집다큐멘터리 섬, 평화의 바람 2부 20:00 SBS 8 뉴스 21:50 판매중계 1부 22:55 본격연예 한밤 1부 23:10 본격연예 한밤 2부 22:00 VIP 22:40 VIP 23:10 불타는 청춘 1부 23:50 불타는 청춘 2부	KCTV 7:00 KCTV 뉴스 8:0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꿈을 그리다' 8:30 문화카페 9:30 헬렌지 퀴즈챌린지 11:40 KCTV 세네한수 13:00 UHD 특선 14:3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꿈을 그리다' 17:40 KCTV 시청자세상 18:00 문화카페 19:00 KCTV 뉴스7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10월

김홍상 지단(해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를 덕을 본다. 재물이 풍부하다. 48년 약속이 생기면 먼저 도착하여 마중하면 나를 존경한다. 60년 낮은 의욕이 저하, 저녁엔 생각이 남는다. 야근할 일이 생길수도. 72년 돌담을 하나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목적달성을 빨리 할 수 있다. 84년 기대나 꿈보다는 큰 욕심이 되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42년 이등운 또는 자녀로 인한 일로 고민한다. 54년 마음이 맞지 않거나 사소로운 일에 민감하다. 상처주는 말을 삼가하라. 66년 손재수 도난 우려되니 조심. 외출시 착각에 의한 분실 조심. 78년 이성간 마찰이 생기거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 90년 마찰 시비구설이 올 수 있으니 금전거래는 보류하는게 현명.

37년 가정에 불화조짐. 내가 먼저 양보 배려. 49년 흔들림만 의욕상실이 많이 초래하니 처음 결심시 지속되도록. 61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문제도 몸이 바쁘다. 73년 하는 일에 희망이 있다. 적극적으로 몸이 삽입이 중요하다. 85년 윗사람의 의견따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실함으로 신뢰를 만회할 때.

43년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건강관리에 신경써라. 55년 투자시 매도와 매수의 시기를 잘 선택하듯 문서 변화시 신중하라. 67년 고부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인행 자제, 흥을 보지 마라. 79년 이성간 교제나 활발한 마음이 주위에 알려진다. 91년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용돈이 생기게 된다.

38년 활동력이 왕성해진다. 자식이나 아랫사람과의 교류가 있다. 50년 모임이나 즐거움이 계획되니 지출이 많아진다. 62년 몸이 분주하다. 외출 또는 모임에 갈 일이 생긴다. 74년 집안 어른께 예·경사가 오니 준비를 미리하라. 손님을 초대할 일이 생긴다. 86년 취업이나 직장 문제로 분주함이 있다.

44년 가정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하나 바깥에서는 활동영역이 넓다. 56년 새로운 계획이 오니 주위 사람과 상의하여 길을 모색하라. 68년 업무의 효율성이 매개되고 결과가 함께 있어 길다. 80년 미소가 아름다운 날 화내지 않는 날로 의미를 부여하라. 92년 위장 또는 귀에 이상이 오거나 체력이 저하된다.

39년 하는 일이 풀리고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다. 51년 모임이 있으면 참석, 다만 술은 주량만큼만. 63년 문서관련 업무로 몸과 마음이 바쁘다. 꼼꼼한 확인과 업무처리 필요. 75년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참고 인내함도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87년 할 일이 생긴다. 원칙과 예의를 가져라.

45년 자신을 알고 분별력 있는 행동시 윗사람이 칭찬을 한다. 57년 문서에 이득이나 영업에 이득이 따른다. 69년 후배나 동료간 친목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성교제가 생기기도 한다. 81년 명예 또는 문서에 변화가 오니 잘 대처하는 신중함 필요함. 93년 문서에 이득이 있고 초대받을 일이 있다.

40년 만남을 소중히, 인연의 시작은 대인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52년 윗분으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인정받게 된다. 64년 명예의 실수와 사소한 시비 거리가 있다. 대응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것도 지혜. 76년 자영업은 지속적 발전이 있고 직장인은 언행 조심해야. 88년 집중력이 오는 효율적 시간대를 활용하라.

46년 자기 감정조절이 필요하며 재물에 이익이 따른다. 58년 내 일보다 자녀문제도 생각이 가득하다. 자녀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다. 70년 대세를 따르며 편하니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출현하여 경쟁한다. 82년 직장인은 호운이 오고 인정을 받는다. 자영업은 휴식 필요. 94년 용돈을 받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41년 라이벌이 등장하는 격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매출은 저조. 53년 맹목적 신뢰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주변인의 말에 현혹 조심. 65년 상대를 받은 표정으로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실적이 생긴다. 77년 취직과 업무에 관련된 것은 김하지만 이성문제는 차질이 생긴다. 89년 계획을 수립, 실천함이 필요하다.

47년 생각은 많은데 결정하는데 망설인다. 신속한 결정이 인정받는다. 59년 부모님이나 윗사람, 거래처의 일로 신경을 쓰게 된다. 71년 같은 업종이나 동료를 만나 즐겨우나 큰 도움은 못된다. 83년 외부에서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가정에서는 불협화음, 조기 귀가하라. 95년 오늘은 침착하게 내일을 준비하라.